



무실점 멈췄지만 마무리 꿈 향해 '전진'



KIA 전상현, 25경기 연속 무실점 KT전서 스펀
"유한준에 흠뻑 허용, 기록 보다 실투 아쉬웠다"

롯데전서 첫 세이브... 든든한 '민을맨'으로 성장중
"롤모델은 오승환... 팀 가을잔치 향해 집중할 것"

'미스터 제로' 타이틀을 내려놓은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홀드 수집에 나선다. 전상현은 지난 9일 KT위즈와의 경기 전까지 13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펼쳤다. 지난 시즌 기록까지 더하면 25경기 연속 무실점, 이닝으로 따지면 28이닝이었다.

하지만 9일 경기에서 전상현의 '0의 행진'이 중단됐다. 3-1로 앞선 8회말 양현종-홍삼상에 이어 전상현이 마운드에 올랐다. KT의 강타자 강백호를 4구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무실점 이닝을 28.1로 늘렸지만 '베테랑' 유한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몸쪽으로 높게 던진 초구 직후 유한준의 방망이가 반응하면서 '미스터 제로' 타이틀을 잃었다. 공을 던지고 나서 전상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맞는 순간 '아차' 싶었던 흠뻑이었다. 전상현은 "맞자마자 아차 싶었다. 흠뻑인 줄 알았다"며 무실점 행진이 깨진 순간을 이야기했다. 물론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기록이 깨졌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닌 실투와 관련한 아쉬움이다. 전상현은 "기록은 신경을 안 써서 괜찮았다"며 "어차피 깨지는 기록이고 점수를 준 것까지도 괜찮았다. 하지만 실투가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쉽게 승부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다. 공이 높게 가다보니 흠뻑으로 연결됐다"며 "(유한준이) 초구부터 노리면서 들어왔다. 실투를 안 놓쳤다"고 덧붙였다.

베테랑과의 승부를 통해 전상현은 세밀한 승부에 대한 필요성을 배웠다. '0'의 기록은 사라졌지만 전상현은 팀 승리, 그리고 마무리 꿈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선발을 꾸리는 많은 투수들과 달리 전상현의 꿈은 마무리다. 대구 출신인 전상현은 '돌부처' 오승환(삼성)을 보면서 마무리 꿈을 꾸곤 했다. 지난 6월 4일 롯데전에서 전상현은 데뷔 후 첫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다. 7-3으로 앞서 9회초 2사 1-3구에 등판한 전상현은 남은 아웃카운트를 처리하면서 세이브를 수확했다. 전상현은 "홀드랑 세이브 느낌은 많이 달랐다. 나는 승보다 홀드도 홀드보다는 세이브다"며 첫 세이브에 대한 소감을 밝혔지만 "그렇지만 지금 내 역할은 홀드"고 필승조의 입구에 맞는 홀드에 집중하

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기록, 숫자보다는 팀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전상현은 가을 잔치를 목표로 시즌을 보낼 계획이다. 부상을 딛고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KIA의 필승조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상현은 곧 꿈에 그리던 순간을 맞게 된다. 자신의 부상이었던 오승환이 지난 9일 키움과의 경기로 통해서 2442일 만에 KBO리그에 복귀했다. 오는 19일 KIA와 삼성과의 홈경기가 예정되면서 전상현은 자신의 부상 앞에서 팀 승리를 책임지게 됐다. 기록 대신 팀 승리를 이야기한 전상현이 타이거즈를 넘어 KBO리그의 '민을맨'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야구 미래들 누가누가 잘하나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개막
KIA 1차 지명 대상 정읍 인상고 첫 승
광주일고, 오늘 강릉고와 첫 경기

코로나19를 뚫고 아마야구도 새 시즌을 열었다.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주말리그 왕중왕전이 11일 서울 목동구장과 신원야구장에서 시작했다. 오는 22일까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권역별 추첨을 통해 선발된 41개 고교가 우승컵을 놓고 대결을 벌인다. KIA 1차 지명 대상 학교인 정읍 인상고가 '흠뻑쇼'로 가장 먼저 승리를 신고했다. 인상고는 11일 대구 상원고와의 경기에서 3회 박성윤의 솔로포와 6회 전희범과 백승민의 백투백 홈런 등을 앞세워 5-1 승리를 거뒀다. 인상고는 13일 오후 12시 30분 인천 제물포고와 32강을 치른다. 지난해 11월 중단된 전남의 세 번째 팀이자 '신생팀' 나주 광남고도 기분 좋은 황금사자기 데뷔전을 치렀다. 광남고는 서울 세현고에 7-0 승리를 거두면서, 13일 오전 9시 30분 중앙고와 두 번째 경기를 갖는다. 12일 오전 9시 30분에는 '고교 특급' 이의리를 앞세운 광주일고와 목동야구장에서 강릉고와 만난다. 이의리와 함께 고교 최고 좌완으로 꼽히는 강릉고 김진욱의 마운드 맞대결이 예정되면서 두 팀의 대결은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꼽힌다. 광주일고의 또 다른 '대어' 포수 조형우가 이의리와 호흡을 맞춰 팀의 7번째 우승을 노린다. 광주 진흥고는 16일 오전 9시 30분 대희 스타를 뒀다. 진흥고는 좌완 박민서(3년)와 우완 문동주(2년) '원투펀치'를 앞세워 의정부 상우고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한편 코로나 19 여파로 지도자 연수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돌아온 이범호가 KIA 스카우트로 황금사자기 현장을 지킨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골 1도움' 황소의 공격본능

황희찬, 오스트리아 리그 재개 후 첫 골...잘츠부르크 5-1 대승 견인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잘츠부르크의 황희찬(24)이 정규리그 재개 후 3경기 만에 골맛을 보며 팀의 대승에 한몫했다. 황희찬은 11일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메르쿠르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름 그라츠와의 2019-2020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챔피언십 3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올려 잘츠부르크의 5-1 대승에 힘을 보탤었다. 이로써 황희찬은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 3월 3일 알타르전 이후 3개월여 만에 정규리그에서 골 맛을 봤다. 황희찬은 올 시즌 정규리그 공격 포인트 기록을 9골 9도움으로 늘렸다. 올 시즌 참가한 모든 대회를 통틀어 14골 16도움을 올렸다. /연합뉴스

황희찬은 전반 43분 잘츠부르크가 4-1로 앞서 나가게 하는 도미니코 소보슬라이의 중거리 골을 도와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후반 21분에는 왼쪽으로 침투한 카림 아데미의 패스를 페널티지역 안에서 받은 뒤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오른쪽 슈팅을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에 꽂아 5-1 승리를 완성했다. 소보슬라이가 헤트트릭을 기록, 잘츠부르크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팻슨 다카도 전반 21분 팀의 3번째 골을 넣어 승리를 거뒀었다. 정규리그 4연승을 달린 잘츠부르크는 2위 LASK 린츠에 승점 5점 앞선 선두(승점 33)를 지켰다. /연합뉴스



보고싶다, 펄펄 나는 기성용·이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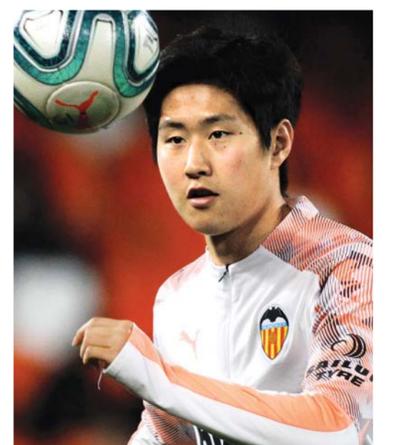
라리가 오늘부터 리그 재개...기성용 마요르카 14일 바르샤전
이강인 발렌시아 내일 레반테전...교체선수 확대에 출전 기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가 다시 시작하면서 한국 축구의 대표주자 기성용(31·마요르카)과 이강인(19·발렌시아)이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성용의 소속팀 마요르카는 14일 오전 5시(한국시간) FC바르셀로나와의 2019-2020 라리가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나선다. 라리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단됐다가 12일 세비야-레알 베티스 경기로 재개한다. 마요르카도 3월 7일 에이바르와의 원정 27라운드 이후 3개월여 만에 공식 경기를 치른다. 기성용은 올해 1월 잉글랜드 뉴캐슬과의 계약이 끝나고 국내 복귀를 타진하다가 불발되자 2월 마요르카에 입단, 에이바르전 교체 투입으로 라리가에 데뷔했다. 그러나 이후 라리가 중단되면서 실전에 더 나서

지 못한 채 석 달을 보냈다. 기성용은 애초 이번 시즌 종료 이후인 이달 말까지 마요르카와 계약했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거취의 불확실성이 생겼다. 재개 이후 한 번의 출전 기회가 기성용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강등권인 18위(승점 25)에 머문 팀의 1부리그 잔류가 최우선 과제다. 첫 경기부터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와의 대결은 부담스러운 일정이지만, 기성용에게는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기성용은 '꿈의 무대' 라리가 진출을 결정하며 세계적인 스타들과의 대결이 "선수 생활 이후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그 대표주자가 메시인 만큼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에 앞서 13일 오전 5시에는 이강



기성용



이강인

인 레반테와의 홈 경기를 준비한다. 이강인은 중단 전 라리가 11경기를 포함해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1골을 기록했다. 부상, 퇴장 징계 등의 영향으로 리그 선발 출전은 2경기뿐이었다. 발렌시아의 '이적 불가' 고수에도 프랑스 올랭피

크 마르세유 등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라 이강인에게도 재개 이후 경기는 중요하다. 선수를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는 코로나19 시대 임시 규정인 라리가에도 적용되는 만큼 출전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